



대중필자들이 낸 책들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

나몰이 지음 | 그리고책기획 | 영진.COM | 222쪽 | 값 8,800원

'나몰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저자는 그림, 사진, 웹디자이너,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독신남자다. 개인 홈페이지www.namool.com에 사진과 함께 요리방법을 올리고 있던 중 제의를 받아 요리책을 내게 됐다. 기존 요리책과는 달리 저자가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든 후 직접 사진까지 찍는다. 자신의 넉네임을 앞세워 음식을 팔 정도로 솜씨가 수준급이다. 밥상 차리기, 맛 집 흥내내기, 밑반찬, 디저트 등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가 가득하다.



《그놈은 멋있었다》(전2권)

귀여니 지음 | 황매 | 각권 319쪽 | 각권 값 9,000원

'인터넷 소설의 진출을 마련한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귀여니(본명 이윤세)의 소설은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통신용어와 이모티콘이 가득한 본문을 놓고 '유치하다' '문학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있었던 반면, '십대들만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평도 적지 않았다. 결국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권에 진입, 영화로 제작되어 수출까지 했고 귀여니는 실력을 인정받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다. 귀여니의 다른 소설로는 《드레미파솔라시도1·2》(황매, 2003), 《내 남자친구에게1·2·3》(황매, 2003), 《늑대의 유혹1·2》(2004, 행복한만화가게), 《귀여니가 뽑은 예쁜 사랑시》(황매, 2005) 등이 있다.



《내 사랑 싸가지》(전4권)

이햇님 지음 | 대현문화사 | 각권 300쪽 내외 | 각권 값 9,000원

영화 <내 사랑 싸가지>의 원작인 이 소설은 인터넷에 연재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어느 날 주인공 '하영'에게 낯선 남자의 전화가 걸려오고 잘생긴 그 남자는 하영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사귀게 될 것을 제안하는데... 저자와 같은 중·고등학교 또래를 대상으로 그들만이 공감할 주제를 내세워 흥미위주의 요소가 강한 소설이다. 연재될 당시 하루 평균 조회수가 11~12만 건에 달할 정도였고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딱정벌레 왕국의 여행자》

한영식·이승일 지음 | 사이언스북스 | 262쪽 | 값 22,000원

우리 땅, 우리 숲의 딱정벌레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린 책. 저자인 한영식 씨가 딱정벌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3년부터다.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딱정벌레에 매료된 이후로는 국내 유일의 딱정벌레 전문동아리 '비틀스Beetles'를 창립하고 1대 회장을 지냈다. 자칭 '딱정벌레 페인'인 한씨는 무려 1,000여 종에 가까운 딱정벌레 표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책에는 200여 종의 딱정벌레를 서식지별로 나누어 습성과 채집법, 사육법을 323컷의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엽기적인 그녀》(전2권)

김호식 지음 | 시와사회 | 각권 272쪽 | 각권 값 7,800원

기계설계를 전공하는 공학도인 저자가 1999년 8월, '견우74'라는 아이디로 PC통신 나우누리 게시판에 연재한 유머소설이다. 터프한 여대생 '그녀'와 순진한 남자 복학생 '견우'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유명세를 타면서 여러 PC통신 게시판으로 옮겨지고 영화 <엽기적인 그녀>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씨의 홈페이지로 유명했던 창작 전문 홈페이지 www.kyunwoo.net는 작년 8월 재오픈해, 인터넷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발굴해 출간, 영화 등으로 지원하는 전문 문화창작 커뮤니티로 거듭났다.



《테디보이》(전2권)

은반지 지음 | 늘푸른소나무 | 각권 340쪽 내외 | 각권 값 9,000원

본명은 유정아, 1987년생으로 현재 진건고등학교에 재학중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연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책은 통신용어와 이모티콘으로 그려낸 고등학생, 그들만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다. 소설은 지방의 명문고등학교에 전학 온 '내숭쟁이' 유소은과 신민지가 외모와 운동 모두 만능인 일명 '킹카'로 불리는 그 학교의 '5대 보이'를 만나면서 전개된다. 저자는 《테디보이》를 시작으로 《키스중독증 1·2·3》(늘푸른소나무, 2003), 《키스중독증 그 후 1·2》(늘푸른소나무, 2003), 《테자부 1·2》(늘푸른소나무, 2004)를 출간했다.



《한살연하 전국서열 1위 유혹하기》(전2권)

리얼겨니 지음 | 삼양출판사 | 각권 330쪽 내외 | 각권 값 9,000원

'제2의 귀여니'라고 불리는 김민진 양은 '리얼겨니'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설연재를 시작했다. 인터넷 작가 데뷔작인 《한살연하...》는 전국의 일진들 사이에서 포커스라 불리는 한 살 아래 남학생과 또래 여자아이들과는 다른 당찬 여학생과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으로 2004년 9월 6일 SBSi 인터넷 소설 공모전에서 인기상을 수상했고 《난 귀하신 몸이다 섹시보이 1·2》(삼양출판사, 2004), 《5대 VIP가 한꺼번에 작업을 걸어 올 때 1·2》(동아, 2004)를 내놨다. 연재중인 <남자는 하늘이다> 등도 출간할 예정이다.



《흑풍》(전8권)

김다호 지음 | 해우 | 각권 300쪽 내외 | 각권 값 7,500원

장편 무협 판타지 소설 《흑풍》과 《서면 마스터》(채널21, 2004)로 잘 알려진 김다호(19)군은 4년 경력의 판타지 작가다. 중학교 1학년 때 판타지소설에 빠지면서 2학년이 되고부터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소설을 쓰기 시작해 미완성 작품까지 포함해 100편이 넘는 소설을 썼다. 글쓰기 실력을 인정받아 인하대 동양어문학부에 수시로 합격한 김 군은 "동양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동양적인 판타지를 쓰고 싶다"며 매일 2~3권의 책을 섭렵하는 독서광이기도 하다.

